

6·25와 4·19혁명... 격동의 역사 한눈에

‘대한민국 100년, 역사를 바꾼 10장면’ 네 번째 전시
국립광주박물관, 10월 27일까지 사진·기념 우표 등

6·25전쟁은 우리 민족에게 큰 상흔을 남겼다. 민간인 학살과 이산가족 문제는 현대사의 큰 후유증으로 남아 있다. 이후 전개된 냉전은 미국과 소련의 군비 경쟁을 불러왔다.

60년대 들어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를 소망했지만, 3·15부정선거로 인해 혼란에 빠진다. 1960년 4월 학생들을 중심으로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반독재 시위가 들불처럼 일어난다. 이른바 ‘4·19혁명’이 발발한 것이다. 특히 광주에서는 전국 최초로 부정선거에 맞선 첫 저항이 일어나 의항의 결기를 보여줬다.

현대사의 격동기였던 ‘6·25전쟁’과 ‘4·19혁명’을 다룬 전시가 열려 눈길을 끈다.

국립광주박물관(관장 김승희)은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년을 기념해 개최하는 ‘대한민국 100년, 역사를 바꾼 10장면’의 네 번째 전시를 10월 27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1950~60년대 주요 사건 가운데 ‘6·25전쟁’과 ‘4·19혁명’을 다룬다.

먼저 ‘6·25전쟁’을 주제로 한 코너에서는 전쟁의 발발에서부터 정전까지의 과정을 담았다.

모두 7장면으로 ‘북한군 남침기사’, ‘무운장군 태극기’, ‘6·25전쟁 주제 어린이 그림’, ‘6·25전쟁 참전국 기념우표’, ‘정전



6·25전쟁 북한군 남침 기사

협정 제2권 지도’, ‘영화 ‘내가 마지막 분홍남’ 포스터’ 등이다.

‘북한군 남침기사’에서는 ‘괴뢰군전면 남침기도’라는 제목으로 6월 25일 오전 5시부터 개성, 강릉, 동두천, 의정부, 춘천 등의 남침 상황과 북한행 열차 운행 전면 금지 등 남침을 알리는 기사가 실려 있다.

‘6·25전쟁 참전국 기념우표’에서는 참전국들을 기념해 발행한 우표를 볼 수 있다. 유엔은 연합군을 결성해 파병할 것을 결의하고 전투와 의료지원에 동참했다.



4·19혁명 광주고생들 교문 돌파 장면

전체적으로 오른쪽에 태극기, 왼쪽에 참전국 국기가 놓인 모습을 볼 수 있다. 파란색은 유엔표장과 비둘기, 녹색은 자유의 여신상이 도안으로 쓰였다.

‘무운장군 태극기’는 ‘6·25전쟁’에 참전하기 위해 출정할 당시 조국 수호를 맹세하며 서명한 태극기다. 깃발에 남겨진 내용에 서 참전용사들의 기상을 엿볼 수 있다.

‘4·19혁명’을 주제로 한 코너는 모두 8장면이 배치돼 있다.

‘1960년 3·15선거 전 상황기사’는 3월 12~14일 발간된 동아일보 기사다. ‘살벌한 공기에 싸인 전남’, ‘부정선거 시정을 요구’, ‘일찌기 없었던 공포 분위기’ 등 3월 15일 제4대 대통령 선거 직전 여수선했던 사회 분위기를 엿볼 수 있다.

광주4·19민주혁명기념관이 제공한 ‘광주 ‘곡궤민주주의의 장송’ 봉기’ 사진은 당시 상황을 생동감있게 보여준다. 3월 15일 오후 12시 45분, 전국 최초로 광주에서

‘민주주의는 죽었다’는 내용의 장송 봉기가 일어나 민주당원, 시민, 학생 등 1000여 명이 참여했다.

광주4·19민주혁명기념관이 제공한 또 다른 사진 ‘광주고등학교 학생 교문 돌파’ 장면도 볼 수 있다. 4월 19일 광주고등학교 학생들이 교문을 박차고 나와 구호를 외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이다. 광주지역에서는 광주고 학생 이외에도 광주공고, 광주농고, 광주상고 학생들이 혁명에 참여했다.

한편 부대 행사가 이번 전시를 기획한 뉴욕타임즈에 소개된 기사도 이색적이다. ‘4·19혁명 관련 뉴욕타임즈’는 한국 학생들의 시위 장면을 1면에 실은 1960년 5월 1일자 기사다.

한편 부대 행사가 이번 전시를 기획한 뉴욕타임즈에 소개된 기사도 이색적이다. ‘4·19혁명 관련 뉴욕타임즈’는 한국 학생들의 시위 장면을 1면에 실은 1960년 5월 1일자 기사다.

관람은 무료이며 자세한 내용은 국립광주박물관 누리집을 참조하면 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박진현의 문화카페

경남 창원에는 SNS 등에서 유명한 미술관이 있다. 사시사철 아름다운 꽃과 식물을 만날 수 있는 보타닉뮤지엄(Botanic Museum)이다. 근래 새로운 트렌드인 ‘그린 투어리즘’을 내건 사립수목원이다. 바쁜 일상에 지친 도시인들을 겨냥한 힐링공간으로 2017년 4월 문을 열었다.

보타닉뮤지엄의 매력은 15만 본의 다양한 식물이 식재돼 날씨와 계절에 구애받지 않고 자연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이다. 5개의 테마공원과 언덕 너머로 펼쳐진 진해만은 압권이다. 하지만 4월 문을 열었다.

보타닉뮤지엄의 매력은 15만 본의 다양한 식물이 식재돼 날씨와 계절에 구애받지 않고 자연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이다. 5개의 테마공원과 언덕 너머로 펼쳐진 진해만은 압권이다. 하지만 4월 문을 열었다.

보타닉뮤지엄의 매력은 15만 본의 다양한 식물이 식재돼 날씨와 계절에 구애받지 않고 자연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이다. 5개의 테마공원과 언덕 너머로 펼쳐진 진해만은 압권이다. 하지만 4월 문을 열었다.

보타닉뮤지엄의 매력은 15만 본의 다양한 식물이 식재돼 날씨와 계절에 구애받지 않고 자연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이다. 5개의 테마공원과 언덕 너머로 펼쳐진 진해만은 압권이다. 하지만 4월 문을 열었다.

보타닉뮤지엄의 매력은 15만 본의 다양한 식물이 식재돼 날씨와 계절에 구애받지 않고 자연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이다. 5개의 테마공원과 언덕 너머로 펼쳐진 진해만은 압권이다. 하지만 4월 문을 열었다.

보타닉뮤지엄의 매력은 15만 본의 다양한 식물이 식재돼 날씨와 계절에 구애받지 않고 자연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이다. 5개의 테마공원과 언덕 너머로 펼쳐진 진해만은 압권이다. 하지만 4월 문을 열었다.

보타닉뮤지엄의 매력은 15만 본의 다양한 식물이 식재돼 날씨와 계절에 구애받지 않고 자연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이다. 5개의 테마공원과 언덕 너머로 펼쳐진 진해만은 압권이다. 하지만 4월 문을 열었다.

보타닉뮤지엄의 매력은 15만 본의 다양한 식물이 식재돼 날씨와 계절에 구애받지 않고 자연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이다. 5개의 테마공원과 언덕 너머로 펼쳐진 진해만은 압권이다. 하지만 4월 문을 열었다.

보타닉뮤지엄의 매력은 15만 본의 다양한 식물이 식재돼 날씨와 계절에 구애받지 않고 자연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이다. 5개의 테마공원과 언덕 너머로 펼쳐진 진해만은 압권이다. 하지만 4월 문을 열었다.

보타닉뮤지엄의 매력은 15만 본의 다양한 식물이 식재돼 날씨와 계절에 구애받지 않고 자연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이다. 5개의 테마공원과 언덕 너머로 펼쳐진 진해만은 압권이다. 하지만 4월 문을 열었다.

보타닉뮤지엄의 매력은 15만 본의 다양한 식물이 식재돼 날씨와 계절에 구애받지 않고 자연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이다. 5개의 테마공원과 언덕 너머로 펼쳐진 진해만은 압권이다. 하지만 4월 문을 열었다.

보타닉뮤지엄의 매력은 15만 본의 다양한 식물이 식재돼 날씨와 계절에 구애받지 않고 자연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이다. 5개의 테마공원과 언덕 너머로 펼쳐진 진해만은 압권이다. 하지만 4월 문을 열었다.

보타닉뮤지엄의 매력은 15만 본의 다양한 식물이 식재돼 날씨와 계절에 구애받지 않고 자연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이다. 5개의 테마공원과 언덕 너머로 펼쳐진 진해만은 압권이다. 하지만 4월 문을 열었다.

보타닉뮤지엄의 매력은 15만 본의 다양한 식물이 식재돼 날씨와 계절에 구애받지 않고 자연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이다. 5개의 테마공원과 언덕 너머로 펼쳐진 진해만은 압권이다. 하지만 4월 문을 열었다.

보타닉뮤지엄의 매력은 15만 본의 다양한 식물이 식재돼 날씨와 계절에 구애받지 않고 자연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이다. 5개의 테마공원과 언덕 너머로 펼쳐진 진해만은 압권이다. 하지만 4월 문을 열었다.

보타닉뮤지엄의 매력은 15만 본의 다양한 식물이 식재돼 날씨와 계절에 구애받지 않고 자연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이다. 5개의 테마공원과 언덕 너머로 펼쳐진 진해만은 압권이다. 하지만 4월 문을 열었다.

보타닉뮤지엄의 매력은 15만 본의 다양한 식물이 식재돼 날씨와 계절에 구애받지 않고 자연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이다. 5개의 테마공원과 언덕 너머로 펼쳐진 진해만은 압권이다. 하지만 4월 문을 열었다.

보타닉뮤지엄의 매력은 15만 본의 다양한 식물이 식재돼 날씨와 계절에 구애받지 않고 자연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이다. 5개의 테마공원과 언덕 너머로 펼쳐진 진해만은 압권이다. 하지만 4월 문을 열었다.

보타닉뮤지엄의 매력은 15만 본의 다양한 식물이 식재돼 날씨와 계절에 구애받지 않고 자연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이다. 5개의 테마공원과 언덕 너머로 펼쳐진 진해만은 압권이다. 하지만 4월 문을 열었다.

보타닉뮤지엄의 매력은 15만 본의 다양한 식물이 식재돼 날씨와 계절에 구애받지 않고 자연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이다. 5개의 테마공원과 언덕 너머로 펼쳐진 진해만은 압권이다. 하지만 4월 문을 열었다.

보타닉뮤지엄의 매력은 15만 본의 다양한 식물이 식재돼 날씨와 계절에 구애받지 않고 자연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이다. 5개의 테마공원과 언덕 너머로 펼쳐진 진해만은 압권이다. 하지만 4월 문을 열었다.

보타닉뮤지엄의 매력은 15만 본의 다양한 식물이 식재돼 날씨와 계절에 구애받지 않고 자연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이다. 5개의 테마공원과 언덕 너머로 펼쳐진 진해만은 압권이다. 하지만 4월 문을 열었다.

보타닉뮤지엄의 매력은 15만 본의 다양한 식물이 식재돼 날씨와 계절에 구애받지 않고 자연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이다. 5개의 테마공원과 언덕 너머로 펼쳐진 진해만은 압권이다. 하지만 4월 문을 열었다.

보타닉뮤지엄의 매력은 15만 본의 다양한 식물이 식재돼 날씨와 계절에 구애받지 않고 자연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이다. 5개의 테마공원과 언덕 너머로 펼쳐진 진해만은 압권이다. 하지만 4월 문을 열었다.

보타닉뮤지엄의 매력은 15만 본의 다양한 식물이 식재돼 날씨와 계절에 구애받지 않고 자연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이다. 5개의 테마공원과 언덕 너머로 펼쳐진 진해만은 압권이다. 하지만 4월 문을 열었다.

보타닉뮤지엄의 매력은 15만 본의 다양한 식물이 식재돼 날씨와 계절에 구애받지 않고 자연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이다. 5개의 테마공원과 언덕 너머로 펼쳐진 진해만은 압권이다. 하지만 4월 문을 열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나 광주문화예술회관에 갈 때면 항상 아쉬운 게 하나 있다. 공연이나 전시를 둘러 본 후 동행한 지인들과 자리를 옮겨 ‘후기’를 주고 받으며 담소를 나눌 만한 ‘공간’이 부족해서다. 물론 문화전당이나 광주문화예술회관에 커피숍이 없는 건 아니다. 하지만 문화전당의 커피숍은 밤 8시 이후에는 거의 문을 닫아 9시가 넘어 공연이 끝나는 날엔 카페를 찾아도 심심치 않다. 광주문화예술회관 로비에 소박하게 꾸며진 카페는 말이 카페이던 편이던 휴게소의 간이매점 연상시킨다. 그렇다 보니 공연이나 전시를 관람한 후 곧바로 집으로 돌아

미술관보다 카페?

로 사이에 들어선 뮤지엄카페는 진해 앞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최고의 뷰 포인트를 자랑한다.

특히 노출콘크리트로 설계된 인테리어와 장식미를 배제한 모던한 분위기는 수목원과 또다른 매력을 선사한다. 입구쪽의 북카페는 마치 깊은 산속에서 책을 읽는 명상의 공간 같다. 바깥 풍경을 최대한 감상할 수 있게 테이블을 창문쪽으로 배치하고 전망대 효과를 내기 위해 카페 중앙에 계단식 좌석을 꾸민 것도 돋보인다.

창원에 보타닉뮤지엄 카페가 있다면 경주에는 ‘카페 솔거랑’이 있다. (재)문화엑스포가 솔거미술관 관람객들이 여유로운 분위기에서 미술품을 관람하도록 지난 6월 오픈한 야외테라스다. 경주타워의 실루엣과 솔거미술관 ‘움직이는 그림’의 배경인 아평지(阿平池)를 즐길 수 있는 위치 덕분인지 개장 3개월 만에 평일 관람객이 1300여 명으로 늘었다.

창원에 보타닉뮤지엄 카페가 있다면 경주에는 ‘카페 솔거랑’이 있다. (재)문화엑스포가 솔거미술관 관람객들이 여유로운 분위기에서 미술품을 관람하도록 지난 6월 오픈한 야외테라스다. 경주타워의 실루엣과 솔거미술관 ‘움직이는 그림’의 배경인 아평지(阿平池)를 즐길 수 있는 위치 덕분인지 개장 3개월 만에 평일 관람객이 1300여 명으로 늘었다.

창원에 보타닉뮤지엄 카페가 있다면 경주에는 ‘카페 솔거랑’이 있다. (재)문화엑스포가 솔거미술관 관람객들이 여유로운 분위기에서 미술품을 관람하도록 지난 6월 오픈한 야외테라스다. 경주타워의 실루엣과 솔거미술관 ‘움직이는 그림’의 배경인 아평지(阿平池)를 즐길 수 있는 위치 덕분인지 개장 3개월 만에 평일 관람객이 1300여 명으로 늘었다.

창원에 보타닉뮤지엄 카페가 있다면 경주에는 ‘카페 솔거랑’이 있다. (재)문화엑스포가 솔거미술관 관람객들이 여유로운 분위기에서 미술품을 관람하도록 지난 6월 오픈한 야외테라스다. 경주타워의 실루엣과 솔거미술관 ‘움직이는 그림’의 배경인 아평지(阿平池)를 즐길 수 있는 위치 덕분인지 개장 3개월 만에 평일 관람객이 1300여 명으로 늘었다.

창원에 보타닉뮤지엄 카페가 있다면 경주에는 ‘카페 솔거랑’이 있다. (재)문화엑스포가 솔거미술관 관람객들이 여유로운 분위기에서 미술품을 관람하도록 지난 6월 오픈한 야외테라스다. 경주타워의 실루엣과 솔거미술관 ‘움직이는 그림’의 배경인 아평지(阿平池)를 즐길 수 있는 위치 덕분인지 개장 3개월 만에 평일 관람객이 1300여 명으로 늘었다.

창원에 보타닉뮤지엄 카페가 있다면 경주에는 ‘카페 솔거랑’이 있다. (재)문화엑스포가 솔거미술관 관람객들이 여유로운 분위기에서 미술품을 관람하도록 지난 6월 오픈한 야외테라스다. 경주타워의 실루엣과 솔거미술관 ‘움직이는 그림’의 배경인 아평지(阿平池)를 즐길 수 있는 위치 덕분인지 개장 3개월 만에 평일 관람객이 1300여 명으로 늘었다.

창원에 보타닉뮤지엄 카페가 있다면 경주에는 ‘카페 솔거랑’이 있다. (재)문화엑스포가 솔거미술관 관람객들이 여유로운 분위기에서 미술품을 관람하도록 지난 6월 오픈한 야외테라스다. 경주타워의 실루엣과 솔거미술관 ‘움직이는 그림’의 배경인 아평지(阿平池)를 즐길 수 있는 위치 덕분인지 개장 3개월 만에 평일 관람객이 1300여 명으로 늘었다.

창원에 보타닉뮤지엄 카페가 있다면 경주에는 ‘카페 솔거랑’이 있다. (재)문화엑스포가 솔거미술관 관람객들이 여유로운 분위기에서 미술품을 관람하도록 지난 6월 오픈한 야외테라스다. 경주타워의 실루엣과 솔거미술관 ‘움직이는 그림’의 배경인 아평지(阿平池)를 즐길 수 있는 위치 덕분인지 개장 3개월 만에 평일 관람객이 1300여 명으로 늘었다.

창원에 보타닉뮤지엄 카페가 있다면 경주에는 ‘카페 솔거랑’이 있다. (재)문화엑스포가 솔거미술관 관람객들이 여유로운 분위기에서 미술품을 관람하도록 지난 6월 오픈한 야외테라스다. 경주타워의 실루엣과 솔거미술관 ‘움직이는 그림’의 배경인 아평지(阿平池)를 즐길 수 있는 위치 덕분인지 개장 3개월 만에 평일 관람객이 1300여 명으로 늘었다.

창원에 보타닉뮤지엄 카페가 있다면 경주에는 ‘카페 솔거랑’이 있다. (재)문화엑스포가 솔거미술관 관람객들이 여유로운 분위기에서 미술품을 관람하도록 지난 6월 오픈한 야외테라스다. 경주타워의 실루엣과 솔거미술관 ‘움직이는 그림’의 배경인 아평지(阿平池)를 즐길 수 있는 위치 덕분인지 개장 3개월 만에 평일 관람객이 1300여 명으로 늘었다.

창원에 보타닉뮤지엄 카페가 있다면 경주에는 ‘카페 솔거랑’이 있다. (재)문화엑스포가 솔거미술관 관람객들이 여유로운 분위기에서 미술품을 관람하도록 지난 6월 오픈한 야외테라스다. 경주타워의 실루엣과 솔거미술관 ‘움직이는 그림’의 배경인 아평지(阿平池)를 즐길 수 있는 위치 덕분인지 개장 3개월 만에 평일 관람객이 1300여 명으로 늘었다.

창원에 보타닉뮤지엄 카페가 있다면 경주에는 ‘카페 솔거랑’이 있다. (재)문화엑스포가 솔거미술관 관람객들이 여유로운 분위기에서 미술품을 관람하도록 지난 6월 오픈한 야외테라스다. 경주타워의 실루엣과 솔거미술관 ‘움직이는 그림’의 배경인 아평지(阿平池)를 즐길 수 있는 위치 덕분인지 개장 3개월 만에 평일 관람객이 1300여 명으로 늘었다.

창원에 보타닉뮤지엄 카페가 있다면 경주에는 ‘카페 솔거랑’이 있다. (재)문화엑스포가 솔거미술관 관람객들이 여유로운 분위기에서 미술품을 관람하도록 지난 6월 오픈한 야외테라스다. 경주타워의 실루엣과 솔거미술관 ‘움직이는 그림’의 배경인 아평지(阿平池)를 즐길 수 있는 위치 덕분인지 개장 3개월 만에 평일 관람객이 1300여 명으로 늘었다.

창원에 보타닉뮤지엄 카페가 있다면 경주에는 ‘카페 솔거랑’이 있다. (재)문화엑스포가 솔거미술관 관람객들이 여유로운 분위기에서 미술품을 관람하도록 지난 6월 오픈한 야외테라스다. 경주타워의 실루엣과 솔거미술관 ‘움직이는 그림’의 배경인 아평지(阿平池)를 즐길 수 있는 위치 덕분인지 개장 3개월 만에 평일 관람객이 1300여 명으로 늘었다.

창원에 보타닉뮤지엄 카페가 있다면 경주에는 ‘카페 솔거랑’이 있다. (재)문화엑스포가 솔거미술관 관람객들이 여유로운 분위기에서 미술품을 관람하도록 지난 6월 오픈한 야외테라스다. 경주타워의 실루엣과 솔거미술관 ‘움직이는 그림’의 배경인 아평지(阿平池)를 즐길 수 있는 위치 덕분인지 개장 3개월 만에 평일 관람객이 1300여 명으로 늘었다.

창원에 보타닉뮤지엄 카페가 있다면 경주에는 ‘카페 솔거랑’이 있다. (재)문화엑스포가 솔거미술관 관람객들이 여유로운 분위기에서 미술품을 관람하도록 지난 6월 오픈한 야외테라스다. 경주타워의 실루엣과 솔거미술관 ‘움직이는 그림’의 배경인 아평지(阿平池)를 즐길 수 있는 위치 덕분인지 개장 3개월 만에 평일 관람객이 1300여 명으로 늘었다.

창원에 보타닉뮤지엄 카페가 있다면 경주에는 ‘카페 솔거랑’이 있다. (재)문화엑스포가 솔거미술관 관람객들이 여유로운 분위기에서 미술품을 관람하도록 지난 6월 오픈한 야외테라스다. 경주타워의 실루엣과 솔거미술관 ‘움직이는 그림’의 배경인 아평지(阿平池)를 즐길 수 있는 위치 덕분인지 개장 3개월 만에 평일 관람객이 1300여 명으로 늘었다.

창원에 보타닉뮤지엄 카페가 있다면 경주에는 ‘카페 솔거랑’이 있다. (재)문화엑스포가 솔거미술관 관람객들이 여유로운 분위기에서 미술품을 관람하도록 지난 6월 오픈한 야외테라스다. 경주타워의 실루엣과 솔거미술관 ‘움직이는 그림’의 배경인 아평지(阿平池)를 즐길 수 있는 위치 덕분인지 개장 3개월 만에 평일 관람객이 1300여 명으로 늘었다.

창원에 보타닉뮤지엄 카페가 있다면 경주에는 ‘카페 솔거랑’이 있다. (재)문화엑스포가 솔거미술관 관람객들이 여유로운 분위기에서 미술품을 관람하도록 지난 6월 오픈한 야외테라스다. 경주타워의 실루엣과 솔거미술관 ‘움직이는 그림’의 배경인 아평지(阿平池)를 즐길 수 있는 위치 덕분인지 개장 3개월 만에 평일 관람객이 1300여 명으로 늘었다.

창원에 보타닉뮤지엄 카페가 있다면 경주에는 ‘카페 솔거랑’이 있다. (재)문화엑스포가 솔거미술관 관람객들이 여유로운 분위기에서 미술품을 관람하도록 지난 6월 오픈한 야외테라스다. 경주타워의 실루엣과 솔거미술관 ‘움직이는 그림’의 배경인 아평지(阿平池)를 즐길 수 있는 위치 덕분인지 개장 3개월 만에 평일 관람객이 1300여 명으로 늘었다.

창원에 보타닉뮤지엄 카페가 있다면 경주에는 ‘카페 솔거랑’이 있다. (재)문화엑스포가 솔거미술관 관람객들이 여유로운 분위기에서 미술품을 관람하도록 지난 6월 오픈한 야외테라스다. 경주타워의 실루엣과 솔거미술관 ‘움직이는 그림’의 배경인 아평지(阿平池)를 즐길 수 있는 위치 덕분인지 개장 3개월 만에 평일 관람객이 1300여 명으로 늘었다.

창원에 보타닉뮤지엄 카페가 있다면 경주에는 ‘카페 솔거랑’이 있다. (재)문화엑스포가 솔거미술관 관람객들이 여유로운 분위기에서 미술품을 관람하도록 지난 6월 오픈한 야외테라스다. 경주타워의 실루엣과 솔거미술관 ‘움직이는 그림’의 배경인 아평지(阿平池)를 즐길 수 있는 위치 덕분인지 개장 3개월 만에 평일 관람객이 1300여 명으로 늘었다.

가는 날에는 엔지 허전한 느낌이 든다. 마치 근사한 저녁식사에 커피나 맛있는 디저트가 빠진 것처럼.

최근 지역의 대표미술관인 광주시립미술관이 방문객 편의시설과 환경개선을 내건 5개년 혁신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오는 2020년까지 현재 분관 1층에 위치한 미술자료실을 2층으로 옮기고 그 자리에 ‘라이브러리 아트라운지’를 조성한다는 것이다. 또한 2022년 개관을 목표로 시민들이 한눈에 중외공원을 볼 수 있는 카페&레스토랑을 증축, 개보수한다는 계획이다.

이제 뮤지엄카페는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공간만은 아니다. 전시 관람을 마친 후 휴식을 취하는 쉼터일 뿐 아니라 잠시 뻥뻥한 일상에서 벗어나 삶의 활력을 되찾는 문화아지트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도 보고 일상의 여유도 얻는 ‘뮤지엄 카페’가 지역에도 많았으면 좋겠다.

이제 뮤지엄카페는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공간만은 아니다. 전시 관람을 마친 후 휴식을 취하는 쉼터일 뿐 아니라 잠시 뻥뻥한 일상에서 벗어나 삶의 활력을 되찾는 문화아지트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도 보고 일상의 여유도 얻는 ‘뮤지엄 카페’가 지역에도 많았으면 좋겠다.

이제 뮤지엄카페는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공간만은 아니다. 전시 관람을 마친 후 휴식을 취하는 쉼터일 뿐 아니라 잠시 뻥뻥한 일상에서 벗어나 삶의 활력을 되찾는 문화아지트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도 보고 일상의 여유도 얻는 ‘뮤지엄 카페’가 지역에도 많았으면 좋겠다.

이제 뮤지엄카페는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공간만은 아니다. 전시 관람을 마친 후 휴식을 취하는 쉼터일 뿐 아니라 잠시 뻥뻥한 일상에서 벗어나 삶의 활력을 되찾는 문화아지트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도 보고 일상의 여유도 얻는 ‘뮤지엄 카페’가 지역에도 많았으면 좋겠다.

이제 뮤지엄카페는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공간만은 아니다. 전시 관람을 마친 후 휴식을 취하는 쉼터일 뿐 아니라 잠시 뻥뻥한 일상에서 벗어나 삶의 활력을 되찾는 문화아지트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도 보고 일상의 여유도 얻는 ‘뮤지엄 카페’가 지역에도 많았으면 좋겠다.

이제 뮤지엄카페는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공간만은 아니다. 전시 관람을 마친 후 휴식을 취하는 쉼터일 뿐 아니라 잠시 뻥뻥한 일상에서 벗어나 삶의 활력을 되찾는 문화아지트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도 보고 일상의 여유도 얻는 ‘뮤지엄 카페’가 지역에도 많았으면 좋겠다.

이제 뮤지엄카페는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공간만은 아니다. 전시 관람을 마친 후 휴식을 취하는 쉼터일 뿐 아니라 잠시 뻥뻥한 일상에서 벗어나 삶의 활력을 되찾는 문화아지트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도 보고 일상의 여유도 얻는 ‘뮤지엄 카페’가 지역에도 많았으면 좋겠다.

이제 뮤지엄카페는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공간만은 아니다. 전시 관람을 마친 후 휴식을 취하는 쉼터일 뿐 아니라 잠시 뻥뻥한 일상에서 벗어나 삶의 활력을 되찾는 문화아지트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도 보고 일상의 여유도 얻는 ‘뮤지엄 카페’가 지역에도 많았으면 좋겠다.

이제 뮤지엄카페는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공간만은 아니다. 전시 관람을 마친 후 휴식을 취하는 쉼터일 뿐 아니라 잠시 뻥뻥한 일상에서 벗어나 삶의 활력을 되찾는 문화아지트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도 보고 일상의 여유도 얻는 ‘뮤지엄 카페’가 지역에도 많았으면 좋겠다.

이제 뮤지엄카페는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공간만은 아니다. 전시 관람을 마친 후 휴식을 취하는 쉼터일 뿐 아니라 잠시 뻥뻥한 일상에서 벗어나 삶의 활력을 되찾는 문화아지트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도 보고 일상의 여유도 얻는 ‘뮤지엄 카페’가 지역에도 많았으면 좋겠다.

이제 뮤지엄카페는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공간만은 아니다. 전시 관람을 마친 후 휴식을 취하는 쉼터일 뿐 아니라 잠시 뻥뻥한 일상에서 벗어나 삶의 활력을 되찾는 문화아지트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도 보고 일상의 여유도 얻는 ‘뮤지엄 카페’가 지역에도 많았으면 좋겠다.

이제 뮤지엄카페는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공간만은 아니다. 전시 관람을 마친 후 휴식을 취하는 쉼터일 뿐 아니라 잠시 뻥뻥한 일상에서 벗어나 삶의 활력을 되찾는 문화아지트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도 보고 일상의 여유도 얻는 ‘뮤지엄 카페’가 지역에도 많았으면 좋겠다.

이제 뮤지엄카페는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공간만은 아니다. 전시 관람을 마친 후 휴식을 취하는 쉼터일 뿐 아니라 잠시 뻥뻥한 일상에서 벗어나 삶의 활력을 되찾는 문화아지트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도 보고 일상의 여유도 얻는 ‘뮤지엄 카페’가 지역에도 많았으면 좋겠다.

이제 뮤지엄카페는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공간만은 아니다. 전시 관람을 마친 후 휴식을 취하는 쉼터일 뿐 아니라 잠시 뻥뻥한 일상에서 벗어나 삶의 활력을 되찾는 문화아지트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도 보고 일상의 여유도 얻는 ‘뮤지엄 카페’가 지역에도 많았으면 좋겠다.

이제 뮤지엄카페는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공간만은 아니다. 전시 관람을 마친 후 휴식을 취하는 쉼터일 뿐 아니라 잠시 뻥뻥한 일상에서 벗어나 삶의 활력을 되찾는 문화아지트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도 보고 일상의 여유도 얻는 ‘뮤지엄 카페’가 지역에도 많았으면 좋겠다.

이제 뮤지엄카페는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공간만은 아니다. 전시 관람을 마친 후 휴식을 취하는 쉼터일 뿐 아니라 잠시 뻥뻥한 일상에서 벗어나 삶의 활력을 되찾는 문화아지트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도 보고 일상의 여유도 얻는 ‘뮤지엄 카페’가 지역에도 많았으면 좋겠다.

이제 뮤지엄카페는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공간만은 아니다. 전시 관람을 마친 후 휴식을 취하는 쉼터일 뿐 아니라 잠시 뻥뻥한 일상에서 벗어나 삶의 활력을 되찾는 문화아지트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도 보고 일상의 여유도 얻는 ‘뮤지엄 카페’가 지역에도 많았으면 좋겠다.

이제 뮤지엄카페는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공간만은 아니다. 전시 관람을 마친 후 휴식을 취하는 쉼터일 뿐 아니라 잠시 뻥뻥한 일상에서 벗어나 삶의 활력을 되찾는 문화아지트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도 보고 일상의 여유도 얻는 ‘뮤지엄 카페’가 지역에도 많았으면 좋겠다.

이제 뮤지엄카페는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공간만은 아니다. 전시 관람을 마친 후 휴식을 취하는 쉼터일 뿐 아니라 잠시 뻥뻥한 일상에서 벗어나 삶의 활력을 되찾는 문화아지트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도 보고 일상의 여유도 얻는 ‘뮤지엄 카페’가 지역에도 많았으면 좋겠다.

이제 뮤지엄카페는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공간만은 아니다. 전시 관람을 마친 후 휴식을 취하는 쉼터일 뿐 아니라 잠시 뻥뻥한 일상에서 벗어나 삶의 활력을 되찾는 문화아지트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도 보고 일상의 여유도 얻는 ‘뮤지엄 카페’가 지역에도 많았으면 좋겠다.

이제 뮤지엄카페는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공간만은 아니다. 전시 관람을 마친 후 휴식을 취하는 쉼터일 뿐 아니라 잠시 뻥뻥한 일상에서 벗어나 삶의 활력을 되찾는 문화아지트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도 보고 일상의 여유도 얻는 ‘뮤지엄 카페’가 지역에도 많았으면 좋겠다.

이제 뮤지엄카페는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공간만은 아니다. 전시 관람을 마친 후 휴식을 취하는 쉼터일 뿐 아니라 잠시 뻥뻥한 일상에서 벗어나 삶의 활력을 되찾는 문화아지트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도 보고 일상의 여유도 얻는 ‘뮤지엄 카페’가 지역에도 많았으면 좋겠다.

‘1318의 창’ 한국청소년영화제 열린다

27~29일 광주독립영화관 등지

청소년이 직접 만들고, 상영하고, 평가하는 영상축제 ‘제21회 한국청소년영화제’가 27~29일 개최된다.

(사)맥지청소년사회교육원(이사장 이강래)과 한국청소년영화제조직위원회(위원장 서정복)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만 13~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미래 한국 영화인을 발굴·육성하고자 기획된 영화제다.

개막식은 27일 오후 6시30분 유스퀘어 광장 야외무대에서 열린다. 이날은 지난해 대상 수상작 ‘오늘이 날이다’(계원예술고 윤예진)가 상영되며 영화분장, 지근공예, 풍선아트 등의 체험, 본선진출작 스틸사진전 등 행사도 열린다.

본선 진출작은 28~29일 양일 동안 광주



‘따동감’

독립영화관 G시네마에서 상영되며, ‘WHAT IS LOVE’, ‘빙하’ 등 예선을 거쳐 선정된 38편의 작품이 상영된다. 시상식은 29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열리며, 수상작에게는 대상(광주시교육감상) 120만원, 금상 80만원 등 총 400여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무료 관람.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춘설현 차 나눔’ ‘영흥식당 아티스트 토크’

오늘 광주시립미술관